

2007 학년도 제 2학기 기 말 고 사

제1학년 국어과 과목코드 : 01

2007 년 12월 4일 2교시

2007-12-04 / -0-22 / 01

▶ 총 문항 수 : 30 문항

▶ 배점 : 각 문항별로 표시

※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알맞은 답을 OMR 카드에 표기하시오.

【 1~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부터 우리 나라는 금수강산이라 불려 왔다. 금수강산은 비단에 수를 놓은 것과 같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이니,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사계절 수놓는 것이 바로 우리 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예사이고, 도대체 저 꽃이 우리 꽃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말이다.

우리 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 꽃 이름도 모르고 우리 꽃인지조차 몰랐지만 이제부터 우리 꽃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꾼다면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나) ㉠봄꽃 중에서도 앵초는 독특한 자태와 고운 빛깔로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린다. ㉡들판에 아지랑이가 한창 피어오를 무렵, 주로 물가에 피어나는 앵초는 주름진 잎새와 진분홍색의 작은 꽃송이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앵초는 이렇게 고운 모습을 하고서도 어린잎을 산나물로 내주고, 뿌리를 포함한 식물 전체가 기침, 천식, 기관지염, 종기 등에 약으로 쓰인다고 하니 참으로 기특한 식물이 아닐 수 없다. ㉣앵초의 꽃말은 '행운' 이다. 아닌게 아니라 봄날, ㉤앵초의 무리를 만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면 이는 분명 행운이다.

(다) 붓꽃은 모양 자체가 워낙 독특하데다가 꽃색마저 신비스러운 보라빛을 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붓꽃이란 이름은 꽃봉오리가 마치 먹물을 머금은 붓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붓꽃은 서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데, 붓꽃의 서양 이름은 '아이리스'이다. 아이리스는 무지개라는 뜻으로, 비온 뒤에 볼 수 있는 무지개처럼 '생활에 기쁜 소식' 을 전해 준다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

(라) 쑥부쟁이는 이름이 조금 낯설지만, 그 모양을 한 번 보면 "아, 그 연보라빛 들국화!" 하고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꽃이다. 고향 산천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따라오는 꽃이 바로 쑥부쟁이이다. 쑥부쟁이는 이 땅의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꽃이다.

(마) 팔손이는 꽃송이가 풍성하고 잎이 시원스럽게 생겨서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그러나 팔손이는 경상 남도 통영에서 배를 타고 두 시간쯤의 거리에 있는 비진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 도서 지방에 자라는 우리 꽃이다. 비진도에서는 팔손이를 총각나무라고도 하는데, 총각나무라는 이름을 나직이 읊조려 보면, 비밀을 간직한 듯 수줍게 웃고 있는 섬 총각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인지 팔손이의 꽃말은 '비밀' 이다.

1. 위 글을 쓴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0점]

- ① 계절마다 유명한 꽃을 소개하려고
- ② 꽃에 얽힌 전설과 꽃말을 수집하려고
- ③ 우리 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려고
- ④ 우리 강산에 우리 꽃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 ⑤ 우리 꽃이 종류가 다양하고 재배가 쉽다는 것을 알리려고

2. ㉠ ~ ㉣ 중, 개인적인 의견으로 짝지어진 것은? [3.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3.0점]

- ① 우리 나라의 강산은 수가 놓여져 있다.
- ② 봄꽃 중에서 앵초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 ③ 붓꽃은 모양이 독특하며 서양에서 온 꽃이다.
- ④ 팔손이는 꽃송이가 풍성하고 잎이 시원스럽게 생긴 이국의 꽃이다.
- ⑤ 쑥부쟁이는 모양을 한 번 보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낯익은 꽃이다.

< 다음 면으로 이동 >

【 4~1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 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 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 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노라.

(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불에 떠 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맑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 당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라)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꾸뽁꾸뽁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4. 위와 같은 글에 쓰인 언어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3.0점]

- ① 압축된 형식미를 가지고 있다.
- ② 노래와 같은 가락이 느껴진다.
- ③ 시적 화자는 반드시 시인 자신이다.
- ④ 읽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이 있다.
- ⑤ 사전적 의미보다 함축적 의미로 쓰여진다.

5. (가) 시에서 말하는 이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3.3점]

- ① 고향 집을 그리실 누님을 떠올리는 모습
- ② 비 온 다음 피어난 봉선화에 감탄하는 모습
- ③ 편지 받은 누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하는 모습
- ④ 고향 집에서 누님과 함께 꽃물 들이던 시절을 떠올리는 모습
- ⑤ 힘줄 선 자신의 손을 보며 손톱에 꽃물 들이려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

6. (가) 시를 바르게 끊어 읽은 것은? [3.4점]

- ①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 ②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 날/ 생각하시리.
- ③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 ④ 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 ⑤ 지금은/ 꿈 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노라.

7. (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0점]

- ① 인간의 순수함을 담은 사실적 성격의 노래이다.
- ② 곱고 섬세한 서정의 세계를 노래하였다.
- ③ 울림 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 ④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하였다.
- ⑤ 동일한 낱말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였다.

8. (라)시의 '시적 화자' 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점]

- ① 내가 가수라면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어.
- ② 내가 연예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③ 내가 의사라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④ 내가 변호사라면 법의 보호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⑤ 내가 부자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선가가 되고 싶어.

< 다음 장으로 이동 >

9. (다) 시에 나타난 심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3.0점]

- ① 잔설처럼 깔린 황혼
- ② 장미꽃 향기에 취해
- ③ 스산히 물고 가는 찬바람
- ④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맛
- ⑤ 계집아이들의 높고 쾌활한 웃음 소리

10. (다) 시에서 ㉠별과 의미가 비슷한 시어들끼리 연결된 것은? [3.0점]

- ① 시의 가슴, 내 마음      ② 햇발, 진눈깨비
- ③ 샘물, 편지              ④ 눈발, 봄 길
- ⑤ 돌담, 함박눈

11. (라) 시의 밑줄 친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3.5점]

- ① 상처              ② 편지              ③ 새살
- ④ 함박눈          ⑤ 진눈깨비

【 12~1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수도를 고치라고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물이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러운 물이 안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일꾼의 대답이 참 걸작이었다. “그거야 할 수 없지 않으나? ㉠토관(土管)을 묻기는 분명 묻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걸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나) 그랬더니 그 상점에는 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양인지 점원은 그 작은 ㉡셔츠를 그대로 권하면서 하는 말이 참 어처구니없었다. / “아, 요거면 꼭 맞을 텐데 공연히 그러시는군요.” / 도대체 나로선 처음 들어간 상점인데, 점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의 어린아이 몸짓을 어떻게 알고 하는 말인지…….

(다) ㉢그 집을 짓고 8년째 되는 가을에 어쩌다 우리 집 부근을 다시 지나게 된 그 도편수가 사랑방을 찾아 들어왔더라. <중략> 무엇을 하는가 따라가 보았더니, 어쩐가! 그 도편수는 한 눈을 지그시 감고 추가 드리워진 실을 한 손에 높이 쳐들고 서서 집 기둥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 기둥이 8년의 세월에 행여 기울어지지나 않았는가 염려하는 것이었다.

(라) 우리는 고적을 찾아갈 때마다 거기서 옛 사람들의 성실성을 발견한다. 그 예로 불국사 앞돌의 탑을 들어도 좋다. 거기 좌우에 놓인 두 개의 돌탑, 그건 정말 종일 그 옆에서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어떤 위엄(威嚴)을 지니고 있는 ㉣석가탑, 마치 일가루를 빚어 만든 것처럼 부드러워 안아보고 싶은 ㉤다보탑. 그건 진정 예술품이다.

12. 위 글에 주로 쓰인 글의 전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개 고른다면? (정답 두 개) [3.0점]

- ①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악기로는 쥘과리, 북, 징, 장구 등이 있다.
- ② 장구는 오른편 가죽면인 ‘채편’과 왼편 가죽면인 ‘북편’, 장구채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사물놀이와 풍물놀이는 사물을 비롯한 풍물을 사용하여 전통 음악을 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④ 사물놀이는 네 가지 농악기로 연주하도록 편성된 음악, 또는 이러한 편성에 따른 합주단을 말한다.
- ⑤ 사물놀이는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춤은 추지 않지만, 풍물놀이는 마당에서 춤을 추고 몸짓을 해가며 연주한다.

13. 위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3.5점]

- ① 선영: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지.
- ② 경태: 우리 주변에는 말이나 행동이 무책임한 사람이 참 많아.
- ③ 필승: 장인 정신을 가져야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어.
- ④ 민아: 어떤 일이든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해내야지.
- ⑤ 우진: 한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지.

14. 아래 글의 ‘한복’에 담긴 글쓴이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담겨 있는 소재를 위 글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5점]

내가 처음 개척자의 심정으로 한복 발표회를 선보인 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200여 회의 발표회를 해 온 것은, 우리 한복의 독특한 아름다움, 즉 선과 색깔의미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993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씩 파리 프레타 포르테에 참가하고 있고, 이번 카네기 홀 발표회는 또다른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설렘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 다음 면으로 이동 >

【 15~1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냥을 하던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해를 당하자 아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그 호랑이와 싸워서 이겼다는 통쾌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밤중에 변소에 갔던 신랑이 호랑이한테 물려 가는 것을 본 신부가 있는 힘을 다하여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매달려 신랑을 구했다는 호젓한 이야기도 있다.

(나) 토끼는 호랑이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서 꼬리를 깊숙이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가 꼬리에 매달릴 것이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꼬리를 빼려고 하면, 토끼는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곤 하였다. 호랑이가 꼬리를 담그고 새벽까지 있자, 연못의 물은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꿈뽕 얼어붙었다.

(다) 호경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큰 소리가 들렸다. / “나는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요. 호경을 굴 안에서 구해낸 것도 나였소. 나 혼자 지내기가 외로워 호경을 데려가니 그리 아시오.” / 사람들이 다시 불을 밝히고 보니 호경은 간 곳이 없었다.

(라) “호랑아, 배가 고프면 이 아이를 잡아먹고, 우리 아버님은 해치지 마라.” /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왔다. 이를 본 호랑이는 그 아이를 잡아먹지 않고 물어다가 동네 어귀에 놓고 갔다. 이튿날 아침, 이웃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마) “우리 어머니가 첫아이를 낳았는데, 호랑이탈을 쓰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산에 버렸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버린 아들이 몹시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버렸다는 이가 형님이 분명합니다.” /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그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하였다.

(바)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로 표현하여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기도 하였으며, 호랑이를 어리석은 존재로 나타내어 삶의 지혜를 소망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신격화하기도 하였고, 정과 의리와 인간의 효성에 감동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15. 위 글을 바탕으로 호랑이의 모습에 투영된 옛 사람들의 의식을 각각 유추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2.5점]

- ① (가)-힘이 센 자와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 ② (나)-어리석은 호랑이의 모습을 탐관오리에 비유하고 있다.
- ③ (다)-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 민간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④ (라)-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보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심성이 반영되어 있다.
- ⑤ (마)-호랑이를 정과 의리의 동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16. 위 글의 짜임을 구조화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3.9점]

- ①
 

(가)	}	(바)
(나)		
(다)		
(라)(마)		
- ②
 

(가)	}	(마)(바)
(나)		
(다)		
(라)		
- ③
 

(가)	}	(바)
(나)		
(다)(라)		
(마)		
- ④
 

(가)	}	(마)(바)
(나)		
(다)		
(라)		
- ⑤
 

(가)	}	(바)
(나)		
(다)(라)(마)		

17. 설화 속에 투영된 호랑이의 모습이 아래 글의 호랑이의 모습과 비슷한 단락은? [3.2점]

포수가 사냥을 하다가 누군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 같아 가까이 가 보니, 호랑이의 목에 비녀가 걸려 있었다. 포수는 이 놈을 살려 놓으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목에 걸린 비녀를 꺼내 주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포수를 등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후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며, 포수가 죽자 아들에게 명당 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바)  
 < 다음 장으로 이동 >

【 18-2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머니가 조심스러운 눈길로 동길이를 힐끗 돌아본다. 집에 와서 갈아입었는지 아버지의 ㉠ 입성은 깨끗했다. ㉡ 정용에 나가기 전, 목공소(木工所)에 다닐 때 입던 누런 작업복 하의에 삼베 상의……。 그런데 / “에?” / 이게 웬일일까? 동길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 <중략> 동길이는 떨리는 손으로 한쪽 소매부리를 들추어 보았다. 없다. 분명히 없다. 동길이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 “어무이, 아버지 팔 하나 없다.”

(나) 대낮이 가까워졌을 무렵, 동길이는 아이들이 떠들어 대는 소리를 듣고, 다리 위를 쳐다보았다. / “외팔죽이.” / “하나, 둘, 셋!” / “외팔죽이.” / 다리 난간에 붙어 서서 이 쪽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모아 고향을 질러 대는 아이들은 틀림없는 자기 학급 아이들이었다. 동길이는 귀뿌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동길이가 쳐다보자, 이번엔 한 놈씩 차례차례 고향을 질러 나간다.

(다) 아버지는 ㉢ 책보를 동길이 앞에 내밀었다. 동길이는 책보와 흰 종이를 한꺼번에 받아 안으며 모가지를 움츠렸다. / “이놈아, 아버지가 정용에 나갔다고 선생님한테 와 말 못하노 말이다. 입은 뒹다가 뭐 할라 카는 입이고?” / “아부지 노무자 나갔다고 캬심더” / 동길이는 약간 뻘뻘 통해졌다.

(리) “아아, 쌍권총을 든 사나이. 아아, 오늘 밤의 ㉣ 활동 사진은 쌍권총을 든 사나이. 많이 구경 오이소! 많이많이 구경 오이소!” / 그리고 ㉤ 매가폰을 입에서 뱀 그 희한한 사람의 시선이 동길이의 시선과 마주쳤다. / 순간, 동길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뒤통수를 야물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희한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다.

(마) 창식이는 이제 소리도 제대로 지르자 못하고 ‘옥! 옥!’ 넘어가고 있었다. / “와 이카노? 와 이카노? 잉! 와 이캐?” / 동길이 아버지는 후다닥 광고판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하나 남은 손을 대고 내저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턱에 붙었던 수영의 실밥이 떨어져서 ㉥ 흰 종이수염이 가슴 앞에 매달려 너풀너풀 춤을 춘다.

18. (가) ~ (마)에서 동길이의 심리 변화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3.5점]

- ① 실망감 - 배신감 - 억울함 - 실망감 - 배신감
- ② 실망감 - 배신감 - 서글픔 - 놀라움 - 화남
- ③ 놀라움 - 배신감 - 서글픔 - 놀라움 - 화남
- ④ 놀라움 - 배신감 - 반발심 - 창피함 - 반발심
- ⑤ 무서움 - 배신감 - 반발심 - 창피함 - 귀찮음

19. 위 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을 모두 고른다면? [3.9점]

- ① ㉠㉡㉢                      ② ㉠㉡                      ③ ㉢㉣㉤
- ④ ㉢㉣                      ⑤ ㉣㉤㉥

20. 위 글에서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0점]

- ① 시간적 배경을 알려줌
- ② 긴장감, 박진감을 조성함
- ③ 인물의 사회적 수준을 느끼게 함
- ④ 의미 전달이 어려워져 작품의 수준을 떨어뜨림
- ⑤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며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

21. ㉥ 흰 종이수염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3.5점]

- ①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킴
- ②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흥미를 더함
- ③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참담한 삶을 나타냄
- ④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 ⑤ 가난과 전쟁이라는 고통에 처한 한 가정의 책임감을 나타냄

22. 위 글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3.5점]

- ① 가난으로 인해 겪는 참담한 삶
- ② 사춘기 소년의 심리와 성장 과정
- ③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의 고통
- ④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 ⑤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삶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 다음 면으로 이동 >

【 2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돼지는 후각이 빼어나게 발달되어 있다. 멧돼지는 몇십 리 밖에 있는 포수의 화약 냄새를 맡고 일찌감치 도망쳐 버릴 정도로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멧돼지의 그 사나운 생김새가 우리를 위협하기는 한다. ㉠집돼지도 마찬가지로 냄새 맡는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새끼와 다른 새끼를 구별하거나, 주인과 남을 구별할 때에 주로 후각을 이용한다. 다른 동물이 침입했는지, 먹이가 들어왔는지를 아는 데에도 주로 후각을 이용한다.

(나) 물은 여러 가지로 이용된다. ㉡물은 음식을 만들 때와, 목욕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등 일상 생활 용수로 쓰인다. 일상 생활 하수는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저수지에 가두어 두었던 물은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된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전기를 일으켜, 우리 생활에 이용하기도 한다.

(다) 시험은 불안감의 대상이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신만의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아이는 시험 전날, 오락실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시험을 잘 본다고 한다. 또, 어떤 아이는 시험 전날에는 절대 손톱이나 머리를 깎지 않는다. ㉣나 또한 시험 보기가 싫다.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시험은 왜 보는 것일까? 나도 시험 전날이면 사소한 것들로 고민을 한다. 목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잠을 잔다면 몇 시에 잘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심지어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또 가방을 어느 쪽으로 열 것이냐까지 신경을 쓴다.

(라) 불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진보시킨 매우 중요한 인간의 특징이다.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음식을 익혀 먹어 위의 부담을 덜게 되었고, 어둠을 쫓아 활동하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모진 추위를 극복함은 물론, 맹수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물론, ㉤잘 훈련된 침팬지도 불을 사용하여 꺾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인간은 불의 사용으로 생존 능력이 증대되었고 생활권도 확장되었다.

23. 위 글 밑줄 친 ㉠ ~ ㉤ 중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으로 짝지어진 것은? [3.5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다음 중 글과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5점]

- ① 주제는 읽는 사람의 능력에 맞는 것이 좋다.  
② 소재를 정한 다음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다.  
③ 주제는 범위가 명확하고 추상적인 것이 좋다.  
④ 주제는 반드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좋다.  
⑤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히 정하고 쓰는 것이 좋다.

25. 다음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가장 알맞은 내용은? [3.5점]

청소년 시기에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 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②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③ 특히 만화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④ 어른들이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⑤ 직접 경험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26. 다음 중 '동음 이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3.5점]

- ① 한자어 가운데 동음 이의어가 많다.  
② 의미는 같으나 소리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③ 동음 이의어가 한자어일 경우 뒤에 한자를 보충해 쓰기도 한다.  
④ 동음 이의 관계의 낱말일 경우 장단으로 뜻을 구별하기도 한다.  
⑤ 동음 이의 관계에 있는 낱말은,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 다음 장으로 이동 >

27. 다음 중 밑줄 친 낱말의 관계가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3.5점]

- ① 밭이 깊었다.  
밭이 맛있다.
- ②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다.  
비가 오다가 날이 개었다.
- ③ 숲 속에 들어가자.  
이 짐 좀 들어 주세요.
- ④ 밭에서 농부가 길을 맨다.  
완도는 길이 많이 난다.
- ⑤ 산에 눈이 많이 내렸다.  
먼지 때문에 눈이 따갑다.

수고했습니다.

28. 다음 밑줄 친 낱말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쓰인 것을 두 개 고른다면?(정답 2개)  
[3.5점]

- ① 건물이 타다.  
비행기를 타다.
- ② 문에 발을 찼다.  
그는 발이 참 넓다.
- ③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나는 그 일에 길이 들었다.
- ④ 아침이 되어 해가 솟았다.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갔다.
- ⑤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마라.  
갑자기 운동을 했더니 몸에 이상이 생겼다.

29. 다음 밑줄 친 낱말 중 '중심 의미'로 쓰인 것은? [3.5점]

- ① 그는 발이 참 빠르다.
- ② 저 장독은 배가 부르다.
- ③ 나는 그와 손을 잡고 일하겠다.
- ④ 그의 모습이 내 가슴에 남아 있다.
- ⑤ 집으로 가는 길이 시원하게 뚫렸다.

30. 다음 밑줄 친 낱말의 장단 표기가 바른 것은?  
[3.5점]

- ① 밭:이 깊었다.
- ② 신에 눈:이 많이 내렸다.
- ③ 우리 나라는 배:를 잘 만든다.
- ④ 나는 어제 말:을 타고 달렸다.
- ⑤ 나는 음식 중에 굴:을 좋아한다.